

간호교육과 가족계획 세미나 종합보고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연세대학교 김 포 임 교수

1. 인구성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가족계획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주장되어 왔으며 또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 나아가서 가정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전국 보건기관을 통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간호원은 가족계획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 이 역할은 간호원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중요한 책임의 하나로 계속 부과될 것입니다. 장차 졸업간호원이 될 학생들이 이상과 같은 책임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과정에 인구 및 가족계획의 강의, 실습 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소에서는 1970년 5월 17일 8,520불을 미국 인구협회에 요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세미나 준비위원회에서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 홍진영 선생님을 준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보건사회부, 문교부, 인구협회, 대한 가족계획협회, 대한 간호협회,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세미나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전국 48개 간호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교육과 가족계획”이란 제목으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계획과 인구동태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원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기 위한
- *모색된 간호원의 역할과 기능을 결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내용을 설정하기 위한

*가족계획과 인구 역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기본 간호교육 내용에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을 중점적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4. 세미나는 1970년 7월 22일에서 25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었으며 개최식은 K. A. L. 건물에서 연세대학교 총장 박 대선 박사의 주재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구 및 가족계획—간호원에 도전하는 새 영역).

5. 전국 42개 간호학교와 2개 병원에서 총 65명이 참석했으며 그 외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학생과 간호대학, 보사부, 국립보건 연구소의 직원을 비롯하여 30여명의 방청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6. 세미나의 강의를 각 분야에서 총 16가지 명게 밑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대선 총장님이 주재강연에서 인구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며 이 대책 사업에 있어 간호원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고 하셨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간호교육의 증대성과 독자성을 인식할 새롭고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 첫날 오전 우리가 듣고 토의한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면

첫째, 인구증감 현상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출이입)으로 나눈다고 하였고 이 중 생물학적 요인이 인구증가 현상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구 위 생물 생태학 주기를 설명하시면서 인구학적 혁명으로 다산다사형에서 소산소사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구문제의 해

결방안이라는 말씀을 양재도 박사님이 해주셨고 둘째, 인구와 관련된 학문은 인구학은 물론 의학, 간호학, 사회학, 경제학등 여러분야와 관계되어 있으나, 경제학의 관계는 주로 다음 세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다. 따라서 인구는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변수라는 점과
2. 실업사태로 사회의 경제적 불안이 심각할 때에는 인구문제는 경제학의 한 중심과제가 된다는 것과
3. 개발도상 국가의 이득해야 할 선행조건은 무엇보다도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김모임 교수가 인구증가와 보건문제를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다산 및 비출산력 조절이 모체와 영유아, 나아가서 가족전체에 반환할 수 없는 큰 손상을 줌을 여러가지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했으 가족계획이 예방 모자보건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인구증가가 앞으로 당면할 보건 의료 시술 및 복지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첫날 오후에는 강준상 박사께서 자녀수와 정신위생 및 양육문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 1) 자녀수와 정신위생 문제
알맞게 낳아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 다산은 허약과 불탄, 고된의 원인이 된다.
- 2) 자녀수와 양육문제
무자녀, 독자녀, 남녀인. 남녀 5인은 그릇된 양육을 가져온 우려가 많으며 남녀 2인이거나 3인이 이상형이다.
- 3) 사회악과 가족계획 문제에 관한 말씀을 요약하던

이 가족계획 운동은 이루어져야겠으며 그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인간중심”에 두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으로 가족계획 운동은 인간의 인식처를 찾자는 운동이요, 사회질서를 찾아 사회악의 근원을 막자는 운

동이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즉 인권옹호의 운동이요 따라서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통해서 범 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성교육, 결혼전 생활지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법모 박사는 인구증가와 사회규범이 한 명제 밑에 인간의 사회규범을 가설적으로 가족계획과 관련시켜 본다면 5가지로 나누어

1. 인간성의 전태를 어떻게 보느냐 즉 인간성을 선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 혹은 백지로 보느냐 또는 가변성이냐 불변적이냐
2. 자기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즉 인간이 자연 아래 있느냐 속에 있느냐 또는 위에 있느냐(위에 있다면 정복하여 살 수 있다)
3. 인간과 인간관계——종적이냐 횡적이냐 또는 개인자체가 중요하냐의 어느곳에 생활관념을 두느냐
4. 시간의 관점——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두느냐

5. 바람직한 인간형을 무엇으로 보느냐
① 활동봉사형 ② 향락은정형 ③ 절제격조형이 있는데 사회에 따라 이상형은 다를 것이다.

사회규범에는 위와 같은 관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절근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가지 입장에서 형성해 온 사회규범이 가족계획 활동에서 한 행동규범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상과 같은 사회규범이 가족계획의 전략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즉 인간의 가치관 및 가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문제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이한빈 박사는 사회변동과 인간능력을 분석하여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 ① 사람과 장소가 달라진다(사람이 어디 사느냐).
- ② 사람과 일의 관계가 달라진다.
- ③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다(man-man relationship).

이렇게 되면 사회변동을 가져오며 Student Power, Women Power는 사회변동에 다른 산물의 형태이며 정치가가 아니라 Scientist가 앞으로 사회변동의 추세에 따라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는 우측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치체계의 변동에 있어서 사회변동이 가속적
이어서 그 Pace가 R.P.M의 속도로 변한다고 했
고 그 뜻은 예가 여성의 사회진출이다.

대학입시 응시자의 40%가 여학생이었다는 뜻
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여자는 여자로
는 여성에 대한 가치체계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가치체계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 했습니다. 즉 뇌와 내가 다 같이 머리와 발
걸음이 맞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잃은 사회변동과 가치체계의 변동
에 따라서 요청되는 능력은 아래와 같다고 했을
니다.

- ① 미래를 보는 눈
- ② 문제분석과 해결하는 능력
- ③ 현 시점에서의 Leadership

이 한빈 박사는 Leadership 기능을 아래와 같
이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 (a) 변동을 가져오는 것.
- (b) Educator가 되는 것.
- (c) Intergrator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횡적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러
므로 인해 협조는 자연히 온다란 말씀은 매우 인
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미나 제 2일 오전은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
업에 관한 실황을 공부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사
업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김택일 국립
가족계획 연구소장의 말씀이 있었고 홍갑표 사
무국장이 대한 가족계획협회의 연혁, 조직, 기능
및 사업 내용과 특성,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말
씀해 주셨고 이경식 교수는 가족계획 사업에 있
어서의 간호조산원의 역할, 문제점 및 전망, 간
호조산원의 역할, 준비(교육),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발언으로 가족계획 교과과정 발전을 위한
간호교육자들의 관심과 인심은 앞으로 간호조산
요원의 준비과정을 가족계획, 임상, 조사연구,
상담, 자문, 영역의 책임완수를 할 수 있게 되
리라 기대했습니다.

가족계획 실천에 영향을 주는 제조건; 제 2일
오후 박형중 박사는 가족계획 실천에 미치는 영
향 중에서 보건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창의가 있었으며 이는 비단 가족계획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원의 보건교육이 과학적 근거를 준
행동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박사는 결혼한 주부가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이 새로운 Idea를 수락, 생활실천
하기에 이르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화적 경
제적 심리적 종교적 및 의학적 요인들이 작용하
고 있음을 지적하고, 행동변화과정에 대한 이해
를 바탕이 되는 Stage of Adoption 즉, 인지, 판
단, 평가, 시도, 채택, 실천 과정의 구체적인 설
명과 아울러 여러가지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가족계획 실천으로 이르는 행동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의사전달과정, 정보 및 지식
원, Reinforcement of Program, 전달할 내용
및 교육의 선택에 관한 기준을 알려 주었고,
Dr. Breidenstein은 종교적 요소가 가족계획 실천
을 강화하는 요소이지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라
는 점을 기독교 윤리학으로 분석하여 Dr. Brei
denstein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명을 아는
사람은 가족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
셨고 "Love calls for Family Planning" 단단하
면서도 가족계획 사업의 기저를 흐르는 철학이
신학철학과 서로 상통하다는 것이며 서로 배타
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은 종교적 이유
를 들고 가족계획 사업을 반대하는 이에게는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현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가족계획 방법을 생명의 의경이라는
기독교 윤리로 분석해 볼 때 다소 문제가 되지만
가족계획 방법이 갖는 자연심리 저해도, 호르몬
및 대충적 적응도를 모두 생각해 볼 때 I.U.D가
가장 적합한 방법 특히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
고

곽현모 박사께서는 여러가지 수태조절법의 종
류, 인체생리를 기본으로 한 기전, 부작용에 대
한 상세한 Information을 제공하였고

조원정 교수는 특별히 본 세미나를 위해 실시
한 우리나라 각계 간호교육 기관에서의 인구 및
가족 교육 실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발
표 내용을 보면 인구문제에 관한 강의 시간 수는
1~6시간까지 있으며 가족계획에 관한 강의 시

간 수는 2~17시간까지 있으며, 실습시간 수는 1~49시간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간호교육 과정에 인구 및 가족계획에 대한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와 보건간호학 교실의 간호학생들의 지식과 태도 연구에 관한 조사결과가 김의숙 선생님의 의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간추리던

1. 간호학생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 및 지식정도가 잘못된 것이 많으므로 절실한 시정과 정확한 지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로 됩니다.

2. 찾아와 원하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교육을 하는 안일한 태도에서부터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로 되는 사람을 찾아 봉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적극적 참여태도의 기풍이 요청됩니다.

3. 지식이 정확할수록 가족계획 사업을 찬성하고 또 더욱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 가족계획 및 인구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 절실히 필요된다고 했습니다. 김모임 교수는 간호학생을 위한 인구 및 가족계획과정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1. 가족계획사업에서 간호원의 역할을 정의하고 2. 이 Role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Educational objection과 Unit과정, Teaching Objectives를 설정해 보았고 3. 이를 위한 교육내용을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각각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4. 교육방법으로 과정설정 및 책임과목에 대한 의견과

5.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문교부 당국의 간호교육 과정의 가족계획 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대한간호협회의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공식성명을 요청했습니다.

제3일 오후에 Panel Discussion은 정부와 여러가지 간호교육 과정에서 실제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속정 이귀향 하영수 김옥실 교수의 가족계획 교육과정 교육에 따른 계획과 문제점, 간호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실제와 문제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1. 소속정 간호사업 과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가족계획 및 보건간호사업에

a) 간호인력 부족문제에 언급, 그 동안 간호원, 조산원 자격자 이외는 가족계획 요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나 간호원 부족으로 현재의 총방인원 50%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어

b) 이 간호원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형의 요원, 무자격자들을 동용하게 되므로 간호원 가족계획사업 참여가 쇠퇴되는 현상을 지적, 가족계획 사업에 이 간호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새로운 요원 및 무자격자 감독 및 지도 등 간호원의 부수적인 책임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언급, 간호교육자들이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시대의 사업 및 농촌을 이해하는 간호원을 양성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2. 대학과정으로서 이귀향 선생님의 말씀은

a) 학위에 요구되는 총 학점과 그 조정하는 문제

b) 가족계획분야 과정을 각 과목에 통합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등 대학과정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에 교육과정 설정 및 확장에 고려되어야 할 난제이나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간호원의 역할을 생각할 때 교육과정 중 교육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간호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교과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세부적이고 결정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3. 김옥실 교수의 지방 3년제 간호학 과정에서는

a) 교수진의 빈약과

b)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포함한 교육 기구 및 실습 시설 불비 문제

c) 초청 강사 이용 부진 문제등이 있으며

전남대학교 간호학교에서는 가족계획을 독립된 과목으로 총 16시간 강의에 48시간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이화대학교 간호대학 교과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하영수 교수는 정부와 간호 교육자들 간

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Mechanism을 개발할 것과

- a.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의 기초과정인 되는 교양과목 확장의 필요성
- b. 간호교육의 추세에 미루어 단독과목 설정은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산부인과 소아과 간호학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기초교육을 마친 후 보건간호학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간호학의 교육내용 외의 내용을 교육해야 할 것이 라고 하였습니다.

7. 구름 트의 결과

A 교과 과정 분과

- 1) 간호학교 교과과정에 가족계획과 인구 문제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 2) 독립된 교과과정 보다는 통합적 교과 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3) 인구 문제와 가족계획에 대한 과정은 보건간호학이 책임지고 관찰 한다.
- 4)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을 위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과정 즉 사회학, 심리학, 인구학, 통계학 등으로 사회 과학 분야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여 교육한다.
- 5) 새로 마련되는 과정 수행을 책임지는 교육자들을 위해 인구 문제와 가족계획에 관련된 교육자료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한다.

B. 교육 내용 분과

- 1) 3년 또는 4년제 전 과정을 통해 인구 문제와 가족계획에 대해 가르쳐도록 한다.
- 2) 보건 간호학 과정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을 가르친다.
 - a. 가족계획의 역사적 배경
 - b. 가족계획의 목적 및 정리
 - c. 가족계획의 사업의 중요성
 - d.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의 보건간호원의 역할
 - e. 현 한국에 있어서 가족계획 사업의 상황

- f. 한국과 세계의 인구 성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
- g. 공중 보건과 가족계획
- h. 피임 방법
- i.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와 실습
- j. 가정 생활의 교육
- k. 환자 발달과 관찰
- l. 가족계획의 교육과 상담

C. 교육 방법 분과

- 1)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강의 방법 즉 시청각 교육자료, 구름 토의, Role Play와 같은 방법을 변화있게 사용한다.
- 2) 임상 실습과 견학 시간을 마련하여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학습 경험을 얻게 한다.
 - a. 임상에서 가족계획 사업 수행을 돕게 한다.
 - b. 가족계획 상담실의 행정을 실습하게 한다.
 - c. 가족계획에 관련된 개인 상담에 참여하게 한다.
 - d. 가족계획의 구름 지도
 - e. 환자 발달과 추후 관찰을 위한 가정 방문을 하게 한다.
 - f. 가족계획을 하는 가정과 하지 않는 가정을 비교하여 그 영향을 보고 가족 간호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지도한다.
 - g. 교아원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아이(사생아를 포함한)가 빚어는 현실을 관찰하게 하여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3) 아래와 같은 가족계획 사업을 수행하고 가족계획에 관련된 제 기관을 방문, 철학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 a. 정부 기관—보사부, 보건소.
 - b. 민간 단체—대한 가족계획 협회.
 - c. 기타 가족계획에 관한 사업과 연구를 하는 제 기관.

D. 연고 분야

1) 교육자들이 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을 하는지 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간호학교의 가족계획에 관한 현교육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2) 교육 방법 특히 면담, 대화, 교육과 상담의 기술과 기교에 대한 연구를 한다.

3) 가족계획 사업에서 간호원을 위한 소책자 및 지도서를 작성한다.

4) 가족계획에 관한 태도 및 사용의 지속성에 따른 간호원의 역할과 영향에 관해 연구한다.

5) 가족계획 사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 간호원이 느끼고 있는 점, 전문 용어의 습득 정도, 능력, 만족감에 대한 조사를 한다.

6) 국가의 가족계획 사업 수행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보건 간호원과 간호교육자들의 책무에 관한 연구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A. 대한 간호협회 귀하

1) 가족계획 사업 목적과 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간호원의 기본 역할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원은 가족계획 사업의 초창기부터 중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졸업 간호원으로서의 임무에 관해서 대한 간호협회로서 공식태도를 천명하지도 않으며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 규정된 간호원의 기능이 없음을 유감스러운 일이다.

간호원이 누구나 가족계획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맡은 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한 간호협회로서의 공식태도 및 기능을 밝혀 주기 바란다.

2) 대한 간호협회의 교육 위원회는 각 간호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연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최소 교과 과정 기준을 준비해 줄 것을 요망한다.

3) 간호원의 편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간호협

회는 사회의 요구 및 시대 조류에 맞는 간호교육을 미리 강저하여 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금번과 같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계획, 개최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B. 대한 가족계획 협회 귀하

1) 서울 및 지방 각 간호학교에서 교육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약속한 가족계획에 관한 시청각 자료 및 참고 문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해 주기를 요망한다.

a. 가족계획 Flip Chart

b. 가정의 벗

c. 인구문제 및 가족계획에 관한 팸플릿 및 리프렛

2) 간호원이 국내 및 국외의 가족계획 회의 및 훈련 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한다.

3) 각 간호학교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망한다.

4) 가족계획 협회내에 간호원 대표가 참석하여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바란다.

C. 보건사회부 귀하

1) 가족계획 사업은 이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원은 물론 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격 간호원의 임무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2) 간호원이 공중 보건사업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있기를 요망한다.

3) 의사가 없는 무의촌에서 IUD 삽입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법적 보장 및 행정적 지원이 강구 되기를 요망한다.

4)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 간호인력이 감소되고 퇴보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는 정부와 간호협회 및 간호교육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전을 개발해야 한다.

5) 가족계획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간호원이 가

장 중요한 인물임을 인식하여 간호 교육자 및 간호원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국내의외 단기 훈련 및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망한다.

6) 간호학생들이 가족계획에 관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정비 및 감독을 행해 줄 것을 요망한다.

D. 문교부 귀하

1) 간호학교에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시행 해야 함을 시달하고 각 간호학교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바란다.

2) 인구 및 가족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 과목을 담당하는 간호 교육자를 위한 단기 훈련기회를 계획, 마련해 주기를 요망한다.

3) 가족계획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므로 각 학교에 자격있는 양호 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며 양호 교사를 반드시 자격있는 간호원을 기용할 것이며 그가 가족계획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

E.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소 귀하

1) 가족계획 분야에 있는 간호교육자와 간호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개최해 줄 것을 요망한다.

2) 단기 훈련 과정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한다.

3) 교육자료와 참고 문헌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한다.

4) 시간과 장소 및 교육방법의 모든 기회들도 합하여 최소 기준 교과 과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한다.

5) 세미나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참가자에게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우송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6) 연구소 관할 하에 들림없이 가족계획 협의의 시칭각 교육자료를 각 참가자에게 보내줄 것을 요망한다.

7) 이 세미나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미국 인구 협회에게 참가자를 대신하여 감사 말씀을 전해 주기를 바란다.

9. 본 세미나를 위해 두개의 독립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는 간호학교에서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현 학교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함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김 옥실선생님

지방 15개 간호학교에 질문지를 보내어 조사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강의를 독립적인 과정으로 실시하는가에 대해 15개 학교가 전부 아니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2) 몇 학년에서 강의하는가에는 대부분이 3학년에 있다고 했습니다.

3) 어느 학과에서 가족계획을 가르치는가?에는 11개 학교에서는 보건 간호학에서, 4개 학교는 보건간호와 산과에서 가르친다는 응답이었습니다.

4) 강의시간은 최저 1시간에서 30시간 이었습니다.

5) 실습시간은 1~50시간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B) 조 원정 선생님의 전국조사

46간호학교에 질문지를 보낸 결과 50%가 응답을 했으며 회수된 질문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지의 응답자는 대개가 보건간호학 담당교수이고 2명이 산부인과 담당교수였습니다. 23개 간호학교 중 1학교만이 가족계획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구성장과 인구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있는 학교는 4학교였습니다.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강의 시간은 차이가 심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

강의내용 \ 시간수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인 구 문 제	4	5	1	5	2	2					19
가 족 계 획		1	2	5	4	2		1	4	3	22
인구및가족계획	1	1	2	1	3	4	3			7	23

강의내용은 다양하지만 대강 다음과 같이 대분할 수 있다.

- 1) 인구와 공중보건
- 2) 가족계획의 중요성과 정의
- 3) 피임방법
(표 11 참조)

표 11

강 의 내 용	학교수	%
1) 인구 문제와 보건	17	73.9%
2) 가족계획의 필요성과 정의	15	65.2
3) 피임법	17	73.9
4) 가족계획상남	1	4.3
5)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8	34.7
6)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	2	8.7
7) 가족계획 사업의 현황	5	2.7

가족계획에 관한 학생 실습시간은 각 학교에 따라 변화가 많다. 5개 학교에서는 임상실습 시간이 전혀 없다고 했다. (표 3 참조)

표 3. 임상실습 시간 수

실습시간 수	학교 수
1-6	2
7-14	8
15-25	3
26-32	2
33-42	1
43-49	2
합	18

10. 세미나 평가는 마지막날

10개항의 질문지를 전 참석자에게 배부하여 그 회답을 받았습니다. 총 참석 65명 중 59명이 응답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석자에 의한 세미나 평가결과

	(%)
1. 세미나의 시기	적당하다 91.5
	부적당하다 6.8
	무응답 1.7
2. 세미나의 기간	너무길었다 0
	알맞다 86.4

	부족하다 13.6
3. 세미나의 사전 준비.....	아주잘되었다 74.6
	잘되었다 25.4
	잘못되었다 0
4. 세미나의 테마	만족하다 96.6
	그저그렇다 3.4
	증지않았다 0
5. 세미나의 연사의 구성.....	만족하다 74.6
	보통이다 23.7
	적절치못하다 0
	무응답 1.7
6. 연사들의 연제 내용.....	아주좋았다 72.9
	보통이다 27.1
	좋지않았다 0
7. 세미나의 참석인원	너무적다 8.5
	알맞다 86.4
	너무많다 5.1
8. 세미나를 위한 재료...도움이된다	98.3
	별도움이못된다 1.7
	전혀도움이없다 0
9. 목적의 달성	달성했다 28.8
	어느정도 됐다 66.1
	못했다 3.4
	무응답 1.7
10.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도움이되었다 84.8
	보통이다 15.2
	전혀도움이못했다 0

결과적으로 세미나 개최시기, 참석자 수, 프로그램 계획 및 준비는 매우 좋았으며 강의내용은 매우 흥미있고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간호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에 대한 재 인식을 하였고 그 필요성을 고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참석자는 세미나 기간이 너무 짧고 프로그램에 여유가 없어서 간호학생을 위한 가족계획과 인구문제에 관한 교육내용에 대해 깊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세미나 개최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보겠습니다. 간호교육자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도 함께 참석하므로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사업에 관련된 간호원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검토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이와같은 모임을 다시 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